

사회적 시간의식 차이가 한영 동시통역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동사 시제 오류 중심으로

원 중 화
(중앙대)

1. 서론

인간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간다. 탄생으로부터 성장,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인생사, 계절의 변화, 일조로부터 일몰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흐름에 기대어 삶의 궤적을 그려나가는 인간에 있어 시간의 흐름은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가늠자이며, 행동 양태를 추동하는 ‘추동자’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간에 대한 의식은 사고의 기저층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시간 의식은 문화적 가치로 얽혀있다. 하나의 문화권은 시간에 대한 가치관이나 생각을 공유하며, 관련된 행동 양식이나 언어적 표현을 공유한다(이상돈 역 1997: 13). 하나의 문화권이 공유하는 ‘사회적 시간’의 규칙을 홀(Hall 1973: ix)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파되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침묵의 언어(silent language)’로 규정했다.

심층적 문화소로서의 시간 의식이 인간의 행태나 언어 사용 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예를 들어 레빈(Levine, 이상돈 역 2000: 183-201)이 분류한 ‘각 나라별 삶의 스피드 순위표’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삶의 속도가 빠른 국가는 서유럽국가들과 일본이며, 마지막 순위에 있는 나라들은 멕시코,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이다. 그밖에도 문화권에 따라서는 요일을 구분하는 단위가 다르기도 하며(이상돈 역 2000: 136), 아예 시간에 대한 단어가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문화권도 있다. 또한 시제를 구분하는 방법도 언어권, 문화권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본 논문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국 문화권과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서구 문화권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적 시간 의식의 차이가 언어의 형태로 어떻게 구체화되며, 이것이 통역 교육에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영 동시통역에서의 동사 시제 전환과 오류 양상을 분석의 도구로 삼고자 한다. 어떤 사건이나 행위, 상태 등의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로서, 언어마다 다르게 실현되는 동사의 시제(이주행 2000: 227)가 사회적 시간의식의 언어적 구현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한 가늠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구 방법으로서, 먼저 선행 연구를 통해 영어와 한국어 사이의 시간 의식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확인했다. 첫 번째 이론적 틀은 순환적 시간의식과 선형적 시간의식 사이의 대비이다. 순환적 시간의식과 관련하여 ‘시점의 이동’ 개념을 확인했고, 이 개념이 동사의 다양한 문법적 형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 두 번째 이론적 틀은 저맥락 언어 대 고맥락 언어의 대비이다. 세세한 정보가 주어지는 것이 특징인 저맥락 언어에 비해 정보 사이에 여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여백으로부터 의미를 유추하는 것이 익숙한 고맥락 언어 사이의 간극이 동시통역에 있어 동사 시제의 이해와 발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단계로 통번역대학원에서 통역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교육 현장에서 시제 문제를 얼마나 염두에 두고 있는지, 시제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점들인지,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을 교육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학생들의 한영 동시통역 내용을 전사한 후에 동사 시제

에서의 오류를 확인했다. 분석 대상 학생 그룹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 학생 2명,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국인 학생 2명이었으며, 오류를 모두 확인하고, 항목별로 분류한 다음 각 항목 별 오류들이 위의 이론적 틀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가 통역 교육에는 어떤 함의가 있을지 논했다.

2. 한국어와 영어 간 시간 의식 차이

2.1 순환적 시간 의식 대 선형적 시간 의식

2.1.1 순환적 시간 의식과 선형적 시간 의식의 문화적 문법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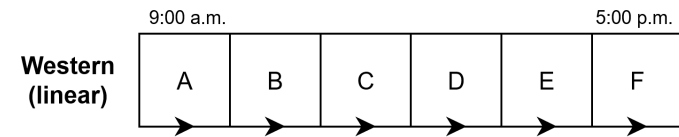
루이스(Lewis, 박종선과 박대식 역 2001: 65-75)는 문화권에 따른 시간 개념을 선형적 시간 의식(linear time), 순환적 시간 의식(cyclic time), 동시행동적 시간 의식(multi-active time)²⁾ 등 세 범주로 구분했다.

미국, 스위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칸디나비아 등 선형적 시간 의식을 갖는 국가(Lewis 2014)의 국민들에 있어 시간은 일직선 상에서 단선적으로 움직인다(그림 1).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로 흘러가며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에게 인생은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향해 가는 여정(Life is a journey.)이며, 죽음은 하나의 종착점(Death is the end of the road.)이다. 선형적 시간 의식에서 시간은 흐름의 축을 따라, 영어의 경우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완료, 과거, 현재완료, 현재, 미래, 미래완료의 순서로 분절되어, 서로 뒤섞이지 않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된다(설옥순 2009:

- 1) 정수복(2007: 47)은 “사회구성원들의 행위의 밑바닥을 가로지르는 공통의 사고방식”을 문화적 문법이라고 규정하고, 문화를 ‘문학예술’, ‘일상문화’, ‘기저문화’로 구분했다. 시간 의식은 인식의 기저층에 자리한 세계관, 인생관을 투영한다는 점에서 위 분류항목 중 ‘기저문화’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 2) 동시행동적 시간 의식(multi-active time)을 갖고 있는 남부유럽 국가들은 한 번에 여러 일을 동시에 진행하는데 익숙하며, 시간의 흐름에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문화권이다. 일정에 얽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남부 유럽 사람들의 특징적 태도는 여러 상황에서 문화 간 충돌을 일으키면서 자주 비교 문화학자들의 연구 주제가 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논의의 항목이므로 상세히 언급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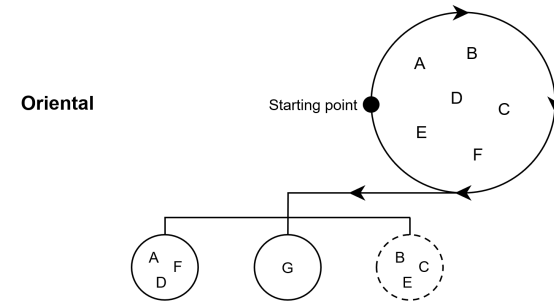
18). 이들에게 스쳐지나가 사라지는 시간(Time passes.)은 ‘사라진다’는 사실 때문에 중요한 자원으로 간주되며(Time is money.), 하는 일 없이 무위로 흘러보내는 시간은 귀중한 자원의 낭비이다(Doing nothing is a waste of time).

그림 1 선형적 시간 의식 (Lewis 2014)



이에 반해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하여 순환적 시간 의식(그림 2)을 갖는 문화권 사람들은 시간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갖고 있다(김대웅, 이상욱 2016: 311, Lewis 2014).

그림 2 순환적 시간 의식 (Lewis 2014)



무교, 불교, 도교, 유교 등의 종교 문화에서 근거한 문화적 문법을 갖고 있는(정수복 2007: 106)³⁾ 한국인에 있어서 삶은 돌고 도는 순환의 길을 걷는다.

- 3) 정수복(2007: 66)은 한 사회를 특징짓는 문화의 근간에는 종교가 깔려있으며, 근세 이래 밀려들어 오는 서구 세계의 영향권에 노출되어 다양한 파생 문화를 끌어안고 있는 한국 사회 역시 그 인간관이나 세계관에 있어 기저층을 형성하고 있는 근본적 문화적 문법은 유교, 불교, 도교, 무교 등의 전통 종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했다.

아침 해는 그 다음날 다시 뜨며, 계절 역시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우리 곁을 맴돈다. 삶은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며(관련 표현: 죽었다 깨어나도), 죽음은 다시 삶으로 이어진다(관련 표현: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보다). 끝없이 순환하는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소진되는 자원이 아니며, 이 문화권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시공간을 넘나드는 일을 쉽게 받아들인다(관련 표현: 지금 아는 것을 그 때도 알았더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2.1.2 시점의 이동

화자의 위치를 현재에 고정시키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과거와 현재, 미래 시제가 단선으로 이루어져 서로 중첩되지 않으며, 시제의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영어(Celce-Murcia and Larsen-Freeman 1999: 162-3)와는 달리, 순환적 시간 의식을 갖는 한국어 문화권에서는 시공간에서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러한 시공간에서의 이동이 문법적 형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개념이 바로 김정우(2020)의 ‘시점의 이동’이다. 김정우(1996: 123)는 (1) ‘내일 아침만 되면 넌 이제 다 살았다’라는 문장을 제시하면서, 미래를 나타내는 ‘내일’이라는 시간 부사와 현재를 나타내는 ‘이제’가 함께 쓰였고, 또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았.’이라는 과거형 선어말 어미를 함께 사용되었다는 점을 볼 때, “한국어의 시제 체계는 물리적 시간 개념이 아닌, 보다 유연한 시각으로 다양한 상태를 표현할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후에 김정우(2020)는 위의 ‘유연한 시각’을 보다 구체화하여, ‘시점의 이동’이라는 개념으로 문법적 특이점을 보이는 다양한 한국어 용례들을 설명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김정우(2020: 128)는 시점을 ‘어떤 사태를 바라보는 화자의 위치’로 규정하고, 여기서 ‘화자의 외부적 위치는 화자가 처한 장소와 시간’으로 그리고 ‘화자의 내부적 위치’는 ‘해당 상황에 대한 심리적 태도’로 규정했다. 이 정의에 따르면 화자의 심리적 태도에 따라 시간이나 공간을 넘나들며 유연하게 장소와 시간을 서술할 수 있는 것이 한국어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시점의 이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1996년에 김정우가 제시했던 위의 예문(1)을 살펴보자면, 미래 시제를 ‘다 살았다’라는 과거형태로 표현한 것은 화자의 시점을 미래로 옮겨 미래로 가보니 이미 ‘살아있는 상태가 멈추어있음’으로 표현한 것으

로서 ‘다 살 것이다’라는 미래형 표현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화자의 의도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내일 아침’이라는 미래 시간부사와 ‘이제’라는 현재 시간 부사가 한 문장에서 함께 쓰여질 수 있는 것 역시 화자의 시점이 현재에서 미래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서, 한국어에서는 다음 예문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절은 과거이지만 접속문이나 내포문에서는 시제가 중화되어 현재 시제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배주채 2020: 194).

- (2) 엄마가 읽는 책은 소설이었다.
- (3) 창문을 열자 별 한 마리가 들어왔다.
- (4)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대외원조를 받아 전쟁의 폐허를 치유하고, 민주주의를 꿈꾸기에는 너무 가난한 나라, 내가 태어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⁴⁾.

배주채(2020: 194)에서 사용되었던 위의 두 예문 중 (2)에서는 내포문, (3)에서는 접속문에서 현재 시제가 사용되고 있으나 본 동사는 과거시제가 사용되었고, 본 연구 분석에 사용되었던 원천텍스트 중의 한 문장인 예문(4) 역시 본문에는 과거 시제, 내포문이나 접속문에서는 현재 시제가 함께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시점의 이동으로 설명해보자면, 화자의 시점이 본 동사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과거로 이동해, 실제로는 과거에 발생한 내포문이나 접속문의 동사를 현재로 표현함으로써 보다 현실감 있게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분석 대상인 원천텍스트에 포함된 다음 예문(5)의 경우, 한 단락내에서 여러 시제가 뒤섞여 표현되고 있는 것을 시점의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 (5) 이를 위해, 예산, 세제, 금융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창출과 가계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재편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4) ‘-이다’는 서술격조사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고, 형용사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지만(송창선 2020: 22-27), 본 논문에서는 이를 기능동사로 분류한 목정수(2009: 46-86)의 입장을 받아들여 원천텍스트 분석 시 동사의 하나로 분류해 분석에 포함시켰다.

인 재정정책도 추진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주거·교육·의료·금융 등 가계부담도 완화할 것입니다.

예문(5)에서는 현재진행(‘-고 있습니다’), 미래(‘-르 것입니다’), 과거(‘-쓰습니다’)등 여러 시제가 한 단락 안에 뒤섞여, 화자가 시점을 이동하면서, 유연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예문들 역시 ‘시점의 이동’으로 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문장들이다.

- (6) 내일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게 되도, 나는 모른다
- (7) 너 내일 거기 안오면 죽었어.

예문(6)은 시점이 ‘내일’이라는 미래 시점으로 이동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로 표현한 것이며, 예문(7)은 미래 시점으로 이동해 죽게된 상태를 마치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인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화자가 의도하는 의미를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어에서 동사 시제를 물리적 시간 개념과 함께 시점의 이동에 따른 심리적 상태 변화와 뒤섞어 표현할 수 있다는 점(김정우 1996: 127)은 통역 과정에서 텍스트의 이해 혹은 발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2.2 고맥락 언어 대 저맥락 언어

한국어에 “꼭 말을 해야 알아?”라는 표현이 있다. 서로 익숙해 많은 맥락을 공유하고 있는 사이라면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하고자 하는 말이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같이 자라난 쌍둥이 사이의 의사 소통은 고맥락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들은 같은 환경에서 자라나면서 많은 맥락을 공유

5) 시점의 이동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주행(2000: 229-29)이나 송창선(2020: 279)의 ‘절대시제’와 ‘상대시제’가 있으나, 이는 본 연구와는 다른 문법적 접근 방식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구체적인 언어 기호에 완전히 의존하지않고도 신체적 기호, 또는 기타의 비언어적 수단을 통해 소통이 가능하다.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을 포함한 이들 고맥락 문화권에서는 맥락을 활용하여 언어 코드에 담긴 메시지를 이해하고 전달하는 것이 일상이며, 그 결과로 언어로 표현해야할 많은 부분들이 맥락 속에 이미 혼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생략되거나, 비언어적 표현으로 전달되고, 메시지는 많은 함의와 애매모호함을 담고 있다(이승재 2012:149; 정창준 1999: 140-41). 이에 반해, ‘고도의 개인화’를 특징으로 하는 미국, 스위스, 독일 등 저맥락 문화권에서는 대부분의 정보가 외연화된 언어 코드에 실리며, 따라서 직접적이며, 정확하고, 명쾌한 표현이 중요하다. 저맥락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법정에서 서있는 두 범람가들이다. 이들은 정확한 어휘와 표현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이해하며,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표준화된 언어 형식에 담아 전달하는 것을 당연하고 중요한 일로 여긴다(Hall, 최효선 역 2000: 69; 정창준 1999: 140-41).

요약하자면, 고맥락 언어의 화자는 맥락으로부터 단서를 얻어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에 익숙하다는 것인데 이러한 소통 방식은 특히 한국어에서 영어로 동시 통역을 수행하는 통역사들에게도 함의하는 바가 크다. 주지하다시피, S+V+O라는 기본 어순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영어와 달리 한국어는 S+O+V의 기본 어순을 가지는 대표적 언어 중 하나이다(Celce-Murcia and Larsen-Freeman 1999: 79-80). 따라서 영어 문장에서는 문두에서 주어에 이어 바로 동사, 법조 동사(modality), 상(aspect) 등이 표현되면서 문장 의미의 향방을 일찌감치 파악할 수 있는 반면에, 한국어인 경우에는 주어 이후에도 목적어, 보어, 부사어, 관형어 등의 기타 문장 성분 들이 모두 나온 후 문미 부분에 가서야 비로써 서술어가 나오게 된다. 따라서 한영 동시통역을 하는 경우 문장 전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미의 서술어까지 확인해야하나 서술어까지 모두 작업 기억에 담기에는 부하가 너무 크며, 동시에 그 다음 문장의 문두 부분 청취를 위한 다중과제 처리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이로 인해 동시통역사들은 술부가 나오기 전에 미리 분절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한영 동시통역을 할 때 거의 73.8%에 달하는 비율로 서술어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문장 분절이 이루어진다고 보고되고 있다(이소희 2014: 121). 따라서 한영 동시통역의 경우, 서술어가 나오기전에 다른 문장 성분들로부터 미리 문장의

의미나 향방을 유추하는 전략을 사용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저맥락 언어와 고맥락 언어 사이의 차이는 동사 시제의 표현방식에 있어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즉, 발화시점을 중심으로 시간을 과거완료, 과거, 현재완료, 현재, 미래, 미래완료의 순서로 나누고, 구분하는 영어에서는 시제와 형식이 정확히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시제를 표현하는데 있어 동사의 형식이 정확히 사용되는 것이 중요하다(설옥순 2009: 18-20). 이에 비해, 한국어에서는 동사 이외에 관형사, 시간부사, 명사 등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해 시제와 시상을 표현할 수 있으며, 같은 형태의 동사라도 결합하는 다른 성분에 따라 시제를 달리 이해해야하는 경우가 많아, 맥락으로부터 시제의 의미를 해석해야하는 경우가 많다(설옥순 2009: 26-27). 예를 들어 다음 예문들을 살펴보자면(이주행 2000: 231)

(8) 이 과일은 내일 먹을 것이다.

(9) 우리가 농친 기차는 지금 대구를 지나고 있을 것이다.

위 예문 (8)과 (9)는 같은 ‘-을 것이다’가 붙었지만 시간부사의 존재로 인해 서 (8)은 의지를 나타내는 미래 시제인데 반해 (9)는 추측을 나타내는 현재시제로 사용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다음의 두 예문에서는 동사 ‘간다’가 (10)에서는 현재를, 그리고 (11)에서는 미래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때 시제를 결정짓는 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오늘’과 ‘내일’이다(송창선 2020: 286). 따라서 이러한 문장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시간 부사를 의미 이해를 위한 단서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0) 나는 오늘 서울에 간다.

(11) 나는 내일 서울에 간다.

위의 여러 예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어에서의 시제 표현에 있어 문법적 형태와 의미가 완전히 일대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동사 이외에 주변 맥락으로부터 정확한 시제를 유추해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의미 이해에 있어 맥락 단서가 중요한 고맥락 화자들과 그 반대 경우인 저맥락 언어 화자 사이에

서로 다른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선형적 시간의식과 순환적 시간의식, 그리고 저맥락 문화와 고맥락 언어와 같은 심층적인 문화적 요소가 한영 동시통역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동사 시제의 오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동시통역을 교육하는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실제 동사 오류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인지, 문제가 되고 있다면 어떤 유형의 오류들인지 이러한 오류들이 교육 현장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등을 살핀 후에, 실제 학생들의 통역 내용을 분석하여 동사 시제 전환의 오류들이 위에서 살펴본 심층적 문화소와 어떤 방식으로 맞닿아 있는지 살피고, 그 교육적 함의를 제시했다.

3. 교수자 대상 설문 조사

3.1 설문조사 실시와 결과 정리

국내 통번역대학원에서 통역을 가르치는 교수자들을 대상으로, 시제 관련하여 실제 교육 현장에서 느껴지는 특기할만한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이와 관련하여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등의 내용을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인 교수자 4명, 외국인 교수자 3명(미국인 2, 캐나다인 1)을 포함하여 총 7명의 교수자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으며, 교수자들의 통번역대학원에서의 통번역 강의 연수는 2년에서부터 13년까지 다양했다(평균 강의 연수: 6년).

설문은 본 논문의 주제인 한영 동시통역과 관련하여 다음 세가지 질문으로 구성했으며, 국내인 교수자에게는 한국어로, 외국인 교수자에게는 영어로 질문하고 각각의 언어로 답변을 받았다.

① 한영 동시통역 강의 시 학생들의 시제(tense) 사용 관련하여 특별히 느껴지는 문제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문제인가? (Have you noticed any misuse or errors in English tense when students do Korean into English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f so, what kind of errors were they?)

② 시제 사용 오류에 있어서 한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 사이에 차이가 보였나? 있다면 어떤 차이였나? (Have you observed any differences in the types of tense errors that Korean students make and the type of errors made by students from other countries for whom Korean is not their native language? If so, please describe those differences.

③ 시제 표현 관련 내용을 강의나 통역 크리틱에 포함시킨 적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내용인가? (Have you ever taught lessons specifically focused on reducing errors in tense? If so, how did you structure the lesson(s)?)

질문지에 대한 답변은 모두 취합한 후에, 다음 <표 1>과 같이 간략한 형태로 정리했다.

<표 1> 시제오류 관련 설문조사 결과

질문	대답
①	<p>-시제문제는 항상 있음. 특히 정치/외교 텍스트에서 시제오류로 누앙스가 잘못 전달되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음. 한국학생의 경우 특히 수동태사용 시 또는 복잡한 문장을 구성하고자 할 때 오역 또는 비문 빈도가 높아짐. 단순과거 혹은 능동태의 단순현재 시제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을 완료시제로 가져가는 경우가 종종 있음. 또한 시제표현 시 어력이 달라질 수 있는 여러 표현들(e.g. should/ is(are) planning to/ is going to/ will/ is(are) sparing no effort)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p> <p>-한영통역에서 주로 동사가 있는 서술어부분에서 오류를 내는 경우가 많음. 원인은 a. 영어의 시제가 한국어보다 유형이 많기 때문에 한영통역 시 영어의 다양한 시제표현 (과거/현재/미래/진행형 등)을 섬세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 b. 한영 통역 시 특히 동사가 원문의 누앙스를 잘 살리지 못하고 간소화된 표현으로 통역되는 경우가 많음.</p> <p>-시제사용 관련 문제점을 네 가지로 요약해보면 a.같은 문장내 시제가 논리적으로 매칭이 안되는 경우(e.g. When I was in school, I study a lot), b. have, had, have been, had been의 차이가 잘 구분되지 않거나 잘못 사용됨, c. 원문에 날짜가 포함된 경우 이에 맞추어 시제가 나와야하는데 엉뚱하게 나옴(e.g. ST에서 "1992년에 저는..." 이렇게 시작되는데 통역이나 현재나 미래시제로 나오는 경우), d. would have been would have done 처럼 여러개 단어로 조합된 시제를 잘 만들어내지 못함.</p> <p>-시제문제가 있었음. 과거 시제가 나와야할 자리에 현재시제가 나오거나 대과거/과거의 구분이 명확하지않은 경우들이 있음. 특히 현재완료를 섞어서 발화하는 습관이 있어 과거시제여야할 자리에도 현재완료를 쓰는 학생들이 종종 있음.</p> <p>-For Korean students, maintaining a consistent tense while describing a specific anecdote is</p>

	<p>often an issue. I've never really seen foreign students (at least the native English speakers) struggle with maintaining tense consistency, but the Korean students sometimes flip back and forth. Also, I've noticed Korean students often using "would" quite frequently in ways that native speakers typically wouldn't(e.g. The government will implement policy X sometime next year. This <u>would</u> have a great effect on our economy).</p> <p>-The most common sort of error is using 'have pp' when simple past tense would be better choice.</p> <p>-I think the most common misuse related to tense was over use of the present perfect. I think there can be a tendency to think it sounds 'fancier' or of a higher register when of course this is not the case. There were also some slips of using present tense for what was obviously a story in the past, but I considered this to be just a slip.</p>
②	<p>-한국학생의 경우 단순시제와 능동형으로 더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을 완료형 혹은 수동태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으며,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 혹은 '해외파'학생들의 경우에는 ST의 시제표현을 의미의 등가가 실현될 수 있게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대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음.</p> <p>-영어 원어민 학생들의 경우 영어 시제의 다차원적인 면을 잘 살리는 편이며, 한국인 학생 중에서도 특히 late bilingual인 경우 맥락에 따라 시제를 다양한 형태로 입체적으로 살리는데 한계가 있는 경향이 더러 보임(표현을 다양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단순 과거/현재/미래 만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p> <p>-To my mind, non-Korean students would be less likely to make errors with tense unless they got really stuck or lost.</p> <p>-For the foreign students, I think it's more so an accuracy issue. If they didn't fully catch the tense, they did not wait till the end of the sentence before beginning to interpret. They tend to either guess the tense or opt for a less definitive option to avoid content errors, thus trying to phrase the sentence ambiguously.</p>
③	<p>-시제를 단순 과거/현재/미래로 처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간단하고 명료한 통역전달이라고 조언해줌. 또한 동시통역의 경우 시제예측이 어려우니 의미단위의 길이를 되도록 짧게 가져가고 문장구조를 최대한 단순화하여 필요에 따라 시제를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게하라고 조언해줌.</p> <p>-크리틱이나 강의 내용에 포함시킴. 같은 문장 내 시제는 논리적으로 말이 되게끔 일치시키기, would have been처럼 여러 단어로 구성된 시제 발화 시 문법까지 지 않도록 주의.</p> <p>-통역 강의 때 시제 크리틱을 자주 하는 편임. 특히 시제(현재완료, 현재, 과거 시제 등)를 정확하게 쓰지않는 경우가 많아 통대에서 공부하는 동안 문법책은 기본적으로 꼭 보고 졸업하라고 조언함.</p> <p>-For their first assignment, I highlighted the tense errors and then had the students fix their own tense mistakes. Later on, I also tried an exercise where I asked the students to translate the same Korean ST paragraph two different ways: one version entirely in past tense and one version entirely in present tense, just to encourage them to start thinking about tense more deliberately and paying more attention to it.</p>

-I've done some drills such as giving a list of sample sentences into which students select which of (past tense vs have pp) is correct(e.g. Ten years ago, I have been/went to Europe. I have done/did my homework already).
 -I provided a lot of notes on slips (weekly feedback). My notes contained a section of mistakes I assumed students would be able to fix on their own and sometimes small slips related to tense appeared. Sometimes if I thought there was confusion on the meaning or usage I'd highlight two different sentences and get students to tell me the meanings (in a whole class short discussion).

3.2 설문조사 결과 종합

설문조사 대상이 된 교수자 7인은 모두 한영통역에 있어 시제 문제는 항상 있고 교육 내용에 시제 문제를 포함시키고 있다고 응답했다.

가장 자주 언급되는 오류는 표현의 정확성 문제였다(10건). 특히 영어가 비모국어인 학생의 경우 시제 표현이 정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특히 수동태 사용한 시제 표현, 복합문 사용 시 시제 사용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과거/현재/미래/진행형 등을 정확히 구분해 표현하지 못한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또한 would have been, would have done처럼 여러개의 단어로 구성된 시제를 정확하게 발화하지 못하며, 어격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e.g. should/is(are) planning to/is going to/will/is(are) sparing no effort to)을 편안하게 사용하지 못하며, 단순 과거/현재/미래 시제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완료의 지나친 사용도 자주 언급되었다. 교수자 7명 중 5명은 학생들이 단순 과거나 현재 시제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현재 완료 시제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고, 특히 외국인 교수자 중 1인은 한국인 학생들이 보이는 시제 오류 중 가장 많은 것이 현재 완료의 지나친 사용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교수자는 “학생들이 아마도 현재 완료를 사용하면 좀더 세련되어 보이거나, 어역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학생들(주로 영어 모국어 화자)과 한국인 학생들간의 차이는 외국인 학생들의 경우는 동사 시제를 비교적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데 반해, 한국 학생들의 경우 표현 사용이 단조롭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시제 문제를 한영 통역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라든가 질문에 대해 교수자 7인은 모두 시제에 관한 내용을 수업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응답했다. 예를 들어 날자, 배경지식 등 시제에 관해 주어지는 맥락 단서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서술어가 나오기전 분절을 하더라도 시제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통역의 경우 되도록 짧게 분절하고 문장구조를 단순화하여 시제의 신속한 전환이 가능하도록 조언한다는 답변도 있었다(위의 <표 1> 문항③ 참고).

결론적으로 동사 시제 오류문제는 한영동시통역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인 것은 분명했고, 교수자들은 모두 동사시제의 오류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교수자들은 동사 시제 오류를 대부분 언어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한국 학생들의 경우 시제의 일관성을 지키지 못하고 한 문장내에서 다른 시제를 섞어쓰는 오류가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평했던 교수자 역시 이러한 오류가 시점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심층적 시간의식에서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만약 학생들의 의식의 기저층에 자리잡은 시간 의식이 동사 시제 오류를 유발한다면, 시제 오류에 대한 교육은 “무엇(what)”뿐만 아니라, 그 근원적 원인을 찾아보는 “왜(why)”가 함께 고려되어야만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다음 장에서는 실제 학생들의 한영동시통역 텍스트를 분석하여, 동사 시제의 오류를 항목별로 분류한 후, 심층적 문화소인 시간의식을 고려하여 오류의 원인을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4. 통역 텍스트 분석

4.1 방법

본 논문은 통번역대학원생들의 한영 동시통역에서 시제 오류를 구분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교육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인위적 실험을 통한 통역이 아닌, 실제 교육 현장에서 평소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하는 통역 발화 내용을 분석에 사용하는 것이 더 목적에 부합할 것이

라 판단했다. 이를 위해 최근 몇 년 이내에 국내 한 통번역대학원에서 4학기 수료 후 실시했던 졸업종합시험에서의 한영 동시통역 내용을 녹음한 것을 분석 대상으로 했다. 데이터 사용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원 교수들로 구성된 교수회의 승낙을 받았으며, 해당 학생들에게는 동사의 시제 오류 분석 내용만을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익명을 보장할 것임을 알리고, 모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4.1.1 원천 텍스트 검토

원천 텍스트(이하 ST로 칭함)는 2017년 9월 20일 뉴욕에서 개최되었던 ‘뉴욕 금융경제인과의 대화(Dialogue with President Moon)’에서 세계 금융의 핵심 리더들을 비롯한 200여명의 미국 금융경제계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새 정부의 경제 철학과 정책을 직접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을 일부 편집한 것이다. 원래 연설문의 길이는 4,673자였으며, 평가를 위해 20분 정도의 시험시간에 맞추어 3,546자 길이로 편집되었다. ST는 사전 녹음하여 진행되었으며, 발화 속도는 218 spm으로서 원종화(2010: 41)에서 언급한대로 가장 편안하게 녹음할 수 있는 발화 속도 212 spm에 근접하게 녹음되었음을 확인했다. 학생들은 15분 전에 핵심단어 리스트를 받아 통역 준비를 했고,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한사람씩 통역 부스에 들어가 녹음된 ST를 들으며 통역을 했다. 통역 내용은 녹음하여 추후 평가에 사용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녹음된 이 통역 파일을 사용했다.

ST의 내용은 크게 (1)인사말 (2)지난 반세기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성과 (3)대한민국 새 정부가 향후 추진할 ‘사람 중심 경제’ 정책의 세가지 축 설명 (4)한국 경제에 투자해야 할 이유 (5)마무리 등 다섯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특히 뉘앙스가 중요한 ‘정치.외교 텍스트’로서 논리 전개가 질서정연하고, 단락 별로 주요 시제가 정해져있거나(예: 과거 정보를 전달할 때는 주로 과거 시제, 미래 계획을 언급할 때는 주로 미래 시제가 텍스트 흐름을 주도), 화자의 의사에 따라 시제가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등 응결성 도구로서 시제의 흐름이 잘 활용되고 있으며⁶⁾, 한 단락 내에서 시제가 뒤섞여 있거나, 주어가 생략되고,

6) 이재원(2001; 285)은 텍스트 구성 요소간의 상호유기적 연결을 실현하기 위한 응결성

연결어미, 선어말 어미 등 다양한 문법적 형태소가 활용되고 있는 등 한국어 텍스트로서 여러 특징들이 잘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으로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4.1.2. 분석대상 학생 선정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영어 간의 시간 의식의 차이가 실제 언어 사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한영 동시통역에서의 동사 시제 오류 유형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한국어 시간의식을 갖고 있는 통역사 그룹과 영어 시간의식을 갖고 있는 통역사 그룹 사이의 비교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해당 학년에서 영어 모국어 화자인 학생 2인(영국인 1, 미국인 1, 이하 각각 FS1, FS2로 지칭함)과 한국인 학생 2인(이하 각각 KS1, KS2로 지칭함)의 통역 내용을 분석하고 비교했다. 한국인 학생은 사회적 시간의식의 영향이 아닌 표현력의 부족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해 영어 표현력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로 선정했다.

해당 학생들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언어 습득 배경을 확인했다. 이중 FS1은 영국인 여학생으로서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했으며, 23세에 한국에 들어와 4년째 체류중인 영어 모국어 화자였으며, FS2는 21세에 처음 한국에 들어와 서울에 위치한 미국 대학 분교를 졸업하고 10년 이상 한국에서 영어 강의를 하다가 30대 초반에 통번역대학원에 입학한 미국인 남학생이었다. 두 학생은 모두 영어가 본인의 모국어라 답했다. KS1은 9세부터 16세까지 7년간 미국에 체류하고 한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한 후 통번역대학원에 입학한 20대 중반의 여학생이며, KS2는 19세부터 24세까지 5년간 미국에 체류하면서 학부 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통번역대학원에 입학한 20대 후반의 여학생이었다. KS1과 KS2는 모두 한국어가 모국어라 답했다.

4.1.3 시제 오류 분석

통역 파일은 전 내용을 본 연구자가 전사했으며, 전사한 내용을 국내 통번

도구로서 반복, 부분반복, 병행구문, 다시쓰기(paraphrase), 대응형, 생략, 시제, 상, 접속형, 기능적 문장 관접 등을 제시했다.

역대학원에서 통역 교육 경력 2년 차인 미국인 교수에게 의뢰하여 영어 모국어 화자로서 시제의 오류를 찾아내고 그 이유와 합당한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부탁했다. 그 후 최종적으로, 통번역대학원에서의 통역 강의 경력 27년차인 본 연구자가 ST와 일일이 대조하면서 원문과 비교하여 시제 오류 때문에 내용이 달라진 점은 없는지 등을 찾고, 오류 유형 차이를 분석해보았다.

4.2 분석 결과

4.2.1 결과 정리

분석 결과 동사 시제에서의 오류 숫자는 한국인 그룹에서 더 많이 발견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외국인 그룹이나 한국인 그룹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전체 발화동사 수⁷⁾ 대비 동사 오류 숫자는 FS1: 11/136, FS2: 24/158, KS1: 7/168, KS2: 15/144로 오류 비율이 평균 0.1%에 못 미치거나 약간 넘는 정도로 발견되었다.

오류의 유형은 다음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그 중 ST 내용 이해와 관련된 오류는 세 항목으로서 첫째, ST에서 한 문장 내 혹은 한 단락 내 시제가 뒤섞인 경우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일관된 시제를 적용하다가 원문과 내용이 달라진 경우가 있었고(a), 둘째로, ST에 사용된 동사가 시제 형태소를 비롯한 복수의 문법 형태소가 결합된 형태(예: -할 것 같았는데)인데, 그 합쳐진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 경우(b), 세 번째는 ST에서 동사 시제 이외에도 배경지식이나, 시제 부사, 앞뒤 맥락 등의 내용으로부터 단서를 얻어 동사 시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정확하게 표현한 경우(c)였다. 이 중 (b)항목은 언어적인 문제였으나, (a)항목은 한 단락내에서 시점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한국어의 시간의식이 잘 체화되지 못하여 발생한 오류이며, (c)항목은 맥락 단서를 활용하여 동사 시제를 파악하기 보다는 동사 시제 자체로부터 시제를 파악하는데 익숙한 저맥락 언어 화자에서 볼 수 있는 시제 오류로 판단되었다. 다시 말해서 ST의 이해와 관련한 세가지 오류 항목 중에 (a)항목과 (c)항목이 사회적 시간의식과 관련이 있는 오류로 볼 수 있다.

7) 여기서 발화 한 동사 수는 시제와 무관한 to부정사나 분사를 제외하고, 본 동사만을 집계했다.

다른 두 가지 오류 항목은 통역 텍스트 발화와 관련된 문제였으며, 첫째는, 통역을 하면서 정확한 시제 표현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d)로서 언어 표현력 부족으로 볼 수 있으며, 두 번째 항목은 한 문장 내에서 일관된 시제를 사용하지 못하고 섞어 사용하는 경우(예: 과거 시제로 사용하다가 현재 시제를 섞어 사용함)였다(e). 이 중 (e)항목은 특히 한국인 학생들의 경우 한 문장내에서 시제의 일관성을 유지해야하는 영어의 특성을 완전히 체화하지 못한 경우로서 한국어 문화권의 시간 의식에 영향을 받은 오류라 볼 수 있다.

<표 2> 학생 별 오류 유형

학생	오류 유형				
	원문의 뒤섞인 형태 못따라감(a)	문법적 형태소 이해 못함(b)	맥락단서 활용하지 못함(c)	시제 표현 부정확함(d)	시제 뒤섞어 발화(e)
KS1	-	-	-	3	4
KS2	-	-	-	12	3
FS1	1	-	10	-	-
FS2	5	4	4	-	-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시제 오류 분석에서 가장 특기할만한 사항은 그룹 간 차이가 확연하게 보였다는 점이다. 물론 한국어가 모국어인 한국인 학생들이 영어 발화에서, 그리고 영어가 모국어인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여기서 특기할 만한 점은 시제 오류의 유형이다. 즉, 학생들의 오류 유형을 보면, 외국인 학생들의 시제 오류 전체 24건 중에 문화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오류는 20건으로 전체 오류의 83.3%를 차지하고 있었고, 한국인 학생들의 경우는 문화적 요인으로 인한 오류가 전체 22건 중 7건(31.8%), 그리고 언어적 문제, 즉 영어 표현력의 문제가 15건(68.2%)이었다. 다시 말해서, 3장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논했듯이, 대부분 교수자들이 시제 오류를 언어적 문제로 간주하고 표현력 등 언어적 문제 해결에 치중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의 심층적 문화소인 시간 의식에 의한 오류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는 것이고,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통역 교육이 결과에만 치중하기 보다는 발화를 포함한 정보 처리 과정에서 어떤 요인이 작용하여 오류를 발생하도록 하는가에 언어적 문제 못지 않

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그룹 간 차이도 있었지만, 그룹 내의 학생들 간에도 오류 유형에 차이가 보였다. 한국인 학생 중 KS1 학생은 시제를 부정확하게 표현하거나, 한 단락 내에서 일관성있게 시제를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시제를 섞어 쓰는 모습이 보였고, KS2 학생 역시 비슷한 양태의 실수를 보였지만, 시제를 부정확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아무래도 해외 체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해외 체류기간이 성년기였던 KS2 학생이 표현을 부정확하게 쓰는 오류가 더 빈번해 교육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시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해야할 필요가 보였으며, 두 학생 모두 영어 텍스트에 있어서 시제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반해 외국인 학생 그룹(FS1, FS2)은 주로 한국어 텍스트 이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특히 한국 내 체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FS1 학생은 맥락 단서를 활용하는데 취약점을 보였다. 배경지식이 부족해 시제를 잘못 사용한다거나, 주어진 시간 부사, 내용의 흐름 등의 맥락 단서를 고려해 시제를 해석해야하는 한국어 시제 체계가 이해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반해 한국내 체류 기간이 더 긴 FS2 학생은 전반적으로 고른 오류 형태를 보였는데 한국어의 특징이기도 한, 동일한 단락 내에서의 시제의 뒤섞임에 적응하지 못하고, 영어의 특징인 선형화된 시제 형식(과거→현재완료→현재→미래)을 따라 발화하다가 원문과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등이 있었고, 한국어 시제에 있어 다양한 문법적 형태소(어미, 선어말어미, 조사 등)의 뉘앙스를 이해하지 못해 기본적인 형태로 통역한 경우 등이 있었다. 따라서 FS1 학생은 동사 시제 오류 개선을 위해 한국어 이해과정에서 좀더 맥락 단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치중해 학습을 해야할 것 같고, FS2 학생은 한국어에 있어서 시제의 이동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하고, 교착어인 한국어의 특징인 시제 선어말어미에 기타의 문법적 형태소가 결합하는 경우의 의미 이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학생 별 시제 오류의 대표적 예들을 제시했다.

4.2.2 학생 별 시제 오류 예

① FS1

가. 맥락으로부터 단서를 얻는데 실패함

예1) ST: 한국 증권시장은 올해 꾸준히 상승하여, 9월 20일 현재 연초대비 19% 상승했습니다.

TT: In this month, September 20th, it reached a 19% growth

수정문: As of today, September 20th, it has reached a 19% increase..

오류 분석: ‘올해’, ‘9월 20일 현재’ 등 시간부사와 ‘꾸준히’라는 부사에서 단서를 얻어 현재완료를 사용했어야함.

예2) ST: 공공 부문 개혁, 산업 구조 개편...등 경제 구조를 더욱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바꾸었습니다.

TT: We had to have reforms and untighten the structure of our economy.

수정문: We reformed and untightened the structure of our economy.

오류 분석: 이 단락은 전체 내용이 한국 경제의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었으므로, 동사가 마지막에 나온다고 해도 동사 시제를 단순 과거로 유추할 수 있어야 했음.

② FS2

가. 한국어 원문에서 뒤섞인 시제 흐름을 따라가지 못함

예) ST: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도 추진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주거, 교육, 의료 등 가계부담도 완화할 것입니다.

TT: We will pursue such policy. We will expand investment to create jobs. And next year as well, we will greatly increase minimum wage. Residence, education and various other fields, we will reduce burden on households.

오류 분석: 원문은 미래, 현재진행, 과거, 미래 등 시제가 뒤섞이는 한

국어 텍스트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통역에서는 일관되게 미래 시제로 표현했음.

나. 문법적 형태소의 의미를 전달하지 못함

예) ST: 다른 선진국과 국제기구들도 비슷한 상황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것 입니다

TT: Other advanced countries are also faced with similar circumstances.

수정문: Other advanced countries faced with similar circumstances will also be harboring these concerns.

오류 분석: 추측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것’의 의미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다. 맥락 단서를 활용하지 못함

예) ST: 당시 39억달러까지 줄었던 외환보유액은 이제 3,850억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입니다.

TT: The foreign reserves had dropped dramatically but the foreign reserves had been back up to its original level.

수정문: The foreign reserves dropped dramatically but now, the foreign reserves are back up to its original level.

오류 분석: ‘당시’, ‘이제’ 등의 시간부사에서 단서를 얻어 과거에 이어 현재 시제를 사용했어야 함.

③ KS1

가. 정확한 시제를 사용하지 못함

예) ST: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도 추진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결정

했습니다. 주거, 교육, 의료, 금융 등 가계 부담도 완화할 것입니다.

TT: We will also address fiscal policies. We will invest in the creation of jobs. And next year, we decided to increase the minimum wage. Housing, education, medical healthcare, and finance, in these sectors, we will lift the burden of household.

오류 분석: next year와 과거 시제가 같이 와서는 안됨. we (have) decided to increase the minimum wage starting next year로 바꾸어야 함.

나. 단락 내/문장 내에서 시제를 일관성있게 유지하지 못함

예) ST: 한국의 새 정부는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의 부름위에 출범하였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더욱 강해지는 국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TT: Korea's new administration will create a just country. It was the people's will that enables the launch of this new administration. A country that changes challenges into opportunities, that is Korea.

오류 분석: 밑줄 친 동사는 주부의 시제와 맞추어 It was the people's will that enabled the launch of this new administration.등 과거 형태로 바꾸어야 하는데 문장 내 시제가 일관되게 유지되지 못함.

④ KS2

가. 시제 표현을 정확히 사용하지 못함

예) ST: 세계 금융과 경제의 중심, 이곳 뉴욕에서...

TT: We are now gathering here at the center of world finance and economy in NY

수정문: We are gatherd/have gathered here at the center of world finance and economy in NY

오류 분석: now gathering은 현재 모이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므로 표현을 수정해야할 필요가 있음.

나. 단락 내에서 시제가 일관되게 유지되지 못함

예) ST: ...금융.재정 여력은 더 확충되었습니다. 공공부문 개혁, 산업구조 개편, 시장 개방과 규제 완화, 금융감독 강화 등 경제 구조를 더욱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바꾸었습니다.

TT: ...our financial and fiscal capability were enhanced. Reform in public sectors and other fields, market opening and enhancing the financial regulations are all taken to make our economy healthier.

오류 분석: 시제를 일관성있게 사용하지 못함. 마지막 동사를 못들었다 라도 이 부분은 과거의 성과를 이야기하는 부분이므로 were all steps we took to strenghten our economy 등으로 바꾸어주어야 함.

5. 종합 논의

트롬페나르(Trompenaars 1993: 20-8)는 ‘문화의 다층 이론(layers of culture)’에서 한 사회의 문화적 요소들을 최외층(outer layer), 중간층(middle layer), 핵심층(core layer)으로 분류했다. 여기서 최외층은 인공물, 물품 등 눈에 보이는 가시적 항목을 말하며, 중간층은 가시적이지는 않지만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항목 들, 예를 들면 사회적 관행, 법 질서 등을 말한다. 또한 핵심층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측정할 수도 없지만 우리의 심층 의식 속에 존재하면서 우리의 행동, 생각, 가치관, 그리고 언어 행태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의식의 흐름이다(원종화 2011: 116).

본 논문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는 의식의 흐름은 바로 ‘사회적 시간 의식’이다. 홀(1973: 1)의 설명대로 시간의 흐름은 우리의 삶의 근간이며, 세상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규정해준다. 심층적 의식의 흐름을 이해하고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김기찬(2000: 2)은 성찰적 방법, 행동 연구, 은유 연구, 질문지 조사, 실험 등을 제안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행동 연구, 즉 통역 과정을 통해 표출되는 언어 행태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의식의 흐름을 가능해보고자 했다.

여기서 분석했던 언어 행태는 바로 동사 시제의 사용 양상이다. 동사 시제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자연 속에서의 시간의 흐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는 문법 범주이다. 시제의 사용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화자가 자연의 흐름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어떤 범주로 분류하며 구분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이론적 틀로서 첫째로는 ‘선형적 시간의식’과 ‘순환적 시간의식’의 차이를 설명했고, 둘째로는 ‘저맥락 언어’와 ‘고맥락 언어’ 사이의 정보 차이를 비교했다. 선형적 시간의식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선형으로 이해하고, 시제 분류의 각 범주는 서로 중첩되지 않으며, 시간의 흐름은 엄격한 시제 규칙이 적용된다. 이에 반해, 순환적 시간 의식은 시간의 흐름을 반복 순환되는 것으로 보며, 언어 사용자의 시점이 유연하게 시간대와 공간대를 이동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시점의 이동은 시제 관련하여 다양한 문법 형식으로 표출된다(2.1.2장 참고).

두 번째의 이론적 틀인 저맥락 언어 대 고맥락 언어의 차이를 가지고 시제 사용을 설명해보자면, 저맥락 언어에서는 시간의 흐름도 질서정연한 체계로 분류되며, 동사 시제의 문법적 형태는 그 의미와 일대일로 대응이 되어, 동사의 문법적 형태를 보면 바로 시제를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고맥락 언어에서는 동사의 문법적 형태가 시제와 언제나 일대일로 대응되는 것이 아니며, 동사의 문법적 형태는 다양한 맥락 단서들(관형사, 시간 부사, 명사 등)과 합쳐져 시제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따라서 고맥락 언어인 한국어에서 동사 시제를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맥락 단서들을 함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분석대상은 통번역대학원생들의 통역 파일이었다. 전문통역사가 아닌 통역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본 연구의 목적이 선행 연구에 기대어 분석 결과를 도출해내고, 이러한 결과들이 통역 교육에 함의하는 바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학생들의 통역 내용을 분석하기 전에, 기존에 통역 강의를 하고 있는 7명의 교수자들을 대상으로 시제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는지,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교육 과정에 어떻게 포함시키고 있는지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3장 참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수자들은 모두 학생들이 통역을 하면서 동사 시제 부분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교육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다만 대부분의 교수자들은 주로 표현의 정확성이나 다양성 등 오류의 언어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학생들의 통역 과정에서 어떤 오류가 발생한다면,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가(what)와 함께, 왜 그러한 오류가 발생하는지(why)를 파악할 수 있어야 개별적 맞춤형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동사 시제에 있어 ‘왜 오류가 발생하는가(why)’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 이를 위해 실제 학생들의 한영 동시통역 파일에서 동사 시제 오류를 찾아내고, 오류를 분류한 후에, 학생 그룹 간(외국인 대 한국인), 그리고 개별 학생 간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 관련 이론적 틀에 기대어 그 원인을 분석했다.

결과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 학생들과 한국인 학생들 간의 오류 유형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었다. 외국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해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는데, 한·영간 시간 의식 차이가 오류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첫째로는, 시점이 이동하면서 한 단락 내에서 혹은 한 문장 내에서 시제 형태가 뒤섞이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한국어 텍스트의 특성이 완전히 체화되지 않아 선형적 시간의식의 특징인 일직선상의 시제를 유지하려다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두 번째로는 특히 서술어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한국어의 특성 상 서술어가 나오기 전에 주변 맥락으로부터 단서를 얻어 동사의 시제, 방향 등을 미리 유추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언어코드로부터 의미를 도출해내는데 익숙한 저맥락 언어 화자인 외국인 학생들이 주변의 맥락 단서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에 있어서의 함의를 살펴보자면, 이러한 오류의 원인을 반영하여 특히 시간 의식이 다른 문화권에서 온 학생들의 경우 한국어 텍스트에서 보이는 시제의 특성을 이해시킨다거나, 맥락 단서를 활용하는 방법을 별도로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면에 한국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수자들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자주 언급되었듯이, 주로 발화 과정에서 시제 표현을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등의 언

어적 문제가 표출되었다. 시제 표현 사용은 서술 지식이 아닌 자동적으로 수행되는 절차적 지식⁸⁾으로 체화될 수 있도록 꾸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다른 문제로, 단락 내 혹은 문장 내에서 시제의 일관성이 지켜지지 못하고 다른 시제를 섞어 쓰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것은 외국인 학생들과는 반대의 경우로, 시점의 이동에 따라 시제를 섞어 쓰는 것이 익숙한 한국인 학생들이 일관된 시제 사용이 중요한 영어의 특성을 완전히 체화하지 못한다. 오는 오류로 판단되며, 이러한 오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형적인 시제 체계가 중요한 영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체화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밖에도 본 연구의 통역파일 분석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교수자들의 설문조사에서 자주 거론되었던 한국인 학생들이 현재완료를 지나치게 또한 많은 경우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문제점 역시 한국어와 영어의 시간 의식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으로 판단된다. 완료상의 의미와 기능은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 큰 차이가 없지만(배주채 2019: 194; Aarts 2011: 70), 영어에서는 완료상이 have+p.p.로 명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한국어에서는 과거와 현재 완료의 형태가 동일하고, 영어와 달리 시제의 분절이 정확하고 체계적이지 않으며, 동사이외에도 다양한 성분 요소들(시간 부사, 조사, 접사, 어미 등의 의존 형태소, 명사, 형용사, 관사 등)이 합쳐져 완료 시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 때문에(설옥순 2009: 9-51) 학생들이 현재완료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완료 사용에 있어서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부정확한 사용을 지적해주는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간 의식 차원에서 한국어와 영어 간 현재 완료 사용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시제에 대한 교육은 언어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으로도 함께 접근해야 할 주제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

8) 서술적 지식(declarative knowledge)은 사실적 정보에 관한 지식(예: 6.25 동란은 1950년에 일어났다)으로서 언어로 설명이 가능한 지식이고, 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인지 구조에 체화되어 거의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나, 기술, 조작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예: 자전거타기)(이정모 외 2003: 171-72).

으며, 이중언어 구사 능력 뿐만 아니라, 이중문화 능력 역시 통역 교육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본 연구는 실제 통역 사례를 중심으로 이론적 틀에 근거하여, 심층적 문화 소인 시간의식이 통역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위적인 실험이 아닌 실제 통역 파일을 분석 자료로 활용했다. 그러나 실제 시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다보니 시험이 지난 후 시간이 흘러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적 성찰을 위한 심층 인터뷰 등을 진행하기가 어려웠고, 이로 인해 보다 다각적인 자료를 활용한 삼각측정법(triangulation)을 통해 질적 연구로서의 신뢰도를 확보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향후 동일 주제에 관한 실험을 진행하거나, 분석 자료의 수를 늘려 양적 분석으로 본 연구 결과를 보완하는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후속 연구의 또 다른 가능성으로서, 시간의식이 심층적 문화소로서 언어 행태에 다양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가 앞으로 영한 통역에서의 시제 오류 양상이 한영 통역에서의 시제 오류 양상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등을 비교 분석하거나, 번역에서의 시제 문제를 분석하는 등의 파생적 연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기찬 (2000) 「영어와 한국어의 기본 색채어의 비교 분석」, 『언어과학연구』 18: 21-48.

김대웅, 이상욱 (2016) 「이상 시의 시간의식 연구: 『이상한 가역반응』을 중심으로」, 『어문학』 133: 305-329.

김정숙, 박동호, 이병규, 이해영, 정희정, 최정순, 허용 (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I』,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정우 (1996) 『영어를 우리말처럼, 우리말을 영어처럼』, 서울: 창문사.

김정우 (2020) 「한국어 문법과 시점(視點)」, 『인문논총』 52: 125-168.

목정수 (2009) 『한국어, 문법 그리고 사유』, 서울: 태학사.

박종석, 박대식, 율김 (2001) 『지구촌 비즈니스 문화』, 서울: FKI미디어

(Richard D. Lewis, 1999, *When Cultures Collide*).

설옥순 (2009) 『‘시간 표현’에 대한 영한 번역 연구: 비등가 원인과 등가 전략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송창선 (2020) 『국어 문법론』, 서울: ㈜박이정.

신필여 (2017) 『한국어 학습자 담화의 시제 사용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원종화 (2010) 『한영 동시통역 시 정보처리의 방향성 연구: 은유 처리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원종화 (2011) 「독자 반응을 통한 한-영 간 색채의식 차이 연구: 한강의 『채식주의자』와 그 영역본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8(5): 111-141.

이상돈, 율김 (2000) 『시간은 어떻게 인간을 지배하는가』, 서울: 황금가지 (Robert Levin, 1997, *A Geography of Time*).

이소희 (2014) 「한영 동시통역에서 분절 및 전환전략의 활용: 명사구의 동사화 사례분석을 통한 고찰」, 『통역과 번역』 16(2): 111-130.

이승재 (2012) 「문화충위와 문화소: 번역에 대한 문화적 접근」, 『번역학연구』 13(1): 137-166.

이재원 (2001) 「드 보그랑데/드레슬러(1981)의 텍스트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텍스트언어학』 11: 279-302.

이정모 외 (2003) 『인지 심리학』, 서울: 학지사.

이주행 (2000) 『한국어 문법의 이해』, 서울: 월인.

정수복 (2007)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당연의 세계 낯설게 보기』, 서울: 생각의 나무.

정창준 (1999) 「문화간 차이와 국제광고 표현전략: 표준화/현지화 전략/질충 전략」, 『사회과학논총』 20: 137-164.

최혜선, 율김 (2000) 『문화를 넘어서』, 서울: 한길사 (Edward T. Hall, 1976, *Beyond Culture*).

Aarts, Bas (2011) *Oxford Modern English Grammar*, NY: Oxford UP.

Celce-Murcia Marianne and Larsen-Freeman Diane (1999) *The Grammar Book: An ESL/EFL Teacher's Course*, MA: Heinle & Heinle Publishers.

Gile, Daniel (1995) *Basic Concepts and Models for Interpreter and Translator*

- Training*,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Hall, Edward T. (1973) *The Silent Language*, NY: Anchor Books.
- Trompenaars, Fons (1993) *Riding the Waves of Culture*, London: The Economist Books.
- Richard, Lewis (2014) 'How Different Cultures Understand Time', Insider, June 2, 2014. Available at <https://www.businessinsider.com/how-different-cultures-understand-time-2014-5>.

[Abstract]

**How Different Time Perception between English and Korean Affects
K-to-E Simultaneous Interpretation— Focusing on Tense Errors**

Won, Jong-Hwa
(Chung Ang University)

Time is seen from a completely different perspective by Korean and English speakers. For Korean speakers, time is cyclic. It does not disappear into the past. Rather, time comes around again and again in a circle. In their perception, they can move rather freely across time and space. Thus past tense is often mixed with future tense, as though the speaker were able to teleport her/himself from the past immediately to the future (e.g. If you do not come here tomorrow, you must have been dead.). For English speakers, however, time runs in a linear manner, segmented by strict rules. The tenses are not mixed, and observing these rules sequentially gives texts logic and coherence.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how different perception of time affects the interpretation process during Korean to English simultaneous interpretation.

For the investigation, the files of K-to-E simultaneous interpretation by 2 Korean graduate students and 2 foreign graduate students(1 American, 1 British) were transcribed and analyzed for tense error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both groups(Korean and Foreign) made a similar number of tense errors. The types of their errors, however, were totally different. Foreign students made tense errors because they could not follow the mixture of tense in a sentence or in a paragraph, characteristic of cyclic time perception. In the meantime, Korean students tended to fail to use accurate tense forms. They sometimes fail to maintain tense consistency in a paragraph, reflecting their time perception.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tense errors made by students should be approached not only from a linguistic perspective but also from a cultural perspective, and lessons should be conducted to reflect this reality.

▶ Key Words: cyclic time perception, linear time perception, low-contextual culture, high-contextual culture, simultaneous interpretation

▶ 주제어: 순환적 시간 의식, 선형적 시간 의식, 저맥락 문화, 고맥락 문화, 동시통역

원종화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전문통번역학과 부교수

wonjh@cau.ac.kr

관심분야: 통번역 정보처리, 문화와 통번역, 통번역 교육

논문투고일: 2021년 9월 5일

심사완료일: 2021년 9월 28일

게재확정일: 2021년 10월 7일